중생 고뇌 해결사, 관세음보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㉝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원문〉 "세존이시여, 저는 또 듣고 닦아 훈습하는 금강삼매의 지음이 없는 미묘한 힘으로 시방 삼세의 육도 중생들과 자비로 우러름이 동일한 까닭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저의 몸과 마음에서 14가지의 두려움이 없는 공덕을 얻게 하나이다.

첫째는 제가 소리를 관하지 아니하고 관하는 것을 관함으로써 시방의 고뇌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그 음성을 관하여 해탈을 얻게 하나이다.

둘째는 알고 보는 것(知見)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설사 큰불에 들어간다 하여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나이다.

셋째는 관찰해 듣는 것(觀聽)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큰 물에 표류하여도 물이 능히 빠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이다.

넷째는 망상을 끊어 소멸시켜 마음에 죽이고 해치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귀신이 능히 해치지 못하게 하나이다."

〈강설〉 〈능엄경〉 6권 뒷부분에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이 설명되고 이어 관세음보살이 육도 중생을 위해 32응신(應身)을 나타내며 14무외(無畏)를 실천하는 내용이 설해진다. 이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불보살의 위신력을 신앙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내려왔다. 이것이 소승불교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원래 관세음보살 위신력에 대해서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품을 〈관음경〉이라 하여 별도로 유통시켜 오기도 하였다. 〈능엄경〉에서도 32응신과 14무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중 14무외의 처음 내용을 살펴본다. 관세음보살이 위신력(威神力)을 가지고 중생들의 험난한 일들을 벗어나게 해 준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이근원통의 공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처음 '입류망소(入流亡所)'를 얻었다 했을 때 말한 것처럼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품을 들어 무엇이 세상의 소리를 관하고 있는지 관하는 자기 자신을 관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능히 보는 본성품을 관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발휘되는 위신력으로 시방의 괴로워하는 중생을 그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나가면서 밖으로 보고 아는 것을 안으로 돌려 자성인 본성의 자리를 회복했으므로 거기서 신통력이 발휘되어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게도 한다는 것이다. 중생이 초인적인 힘을 얻어 이른바 삼재(三災)를 면할 수 있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불에 의한 재앙과 물에 의한 재앙, 그리고 바람에 의한 재앙을 삼재(三災)라고 한다. 중생의 기복 심리를 영복축액(迎福逐厄), 혹은 원화소복(遠禍召福)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누구나 도움을 바라며, 또 기적을 바라거나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 내게 입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신앙은 기도로써 신앙행위가 표현되는 것이다. 밀교에서는 기도행위에 5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한다. 식재(息災), 경애(敬愛), 증익(增益), 조복(調伏), 구소(鉤召), 다섯 가지다. 식재는 재앙이 소멸된다는 말이고, 경애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말이다. 증익은 이익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며, 조복은 마군을 항복시킨다는 말이다. 구소는 갈고리에 걸어 당겨 올린다는 뜻이다.

모두 공리적인 타산을 맞추는 말이기는 하지만 복을 원하는 마음인 복분심(福分心)에 있어서는 현실 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물론 도를 깨닫고자 하는 도분심(道分心)에 있어서는 이런 사항들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추구하여 본분의 수행을 완성하고자 하는 면을 더욱 중시한다. 어떻든 복분심이나 도분심에 다 같이 신심이 갖춰져야 하고 불보살의 호념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선정바라밀 닦으려면 과지법행 갖춰야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㉝ 선정바라밀

선정바라밀을 닦으려면 과지법행이 갖추어져야 한다. 생멸수행의 과지법행을 갖추고 진여수행의 과지법행이 갖추어져야 선정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 선정바라밀이 행해지려면 먼저 정(定)의 주체를 세워야한다. 선정의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의 주체가 쓰인다. 생멸수행에서 활용되는 정의 주체는 아홉 가지 마음 상태와 열두 개의 기점이 쓰인다. 표면적 유위각, 미세적 무위각, 일시적 무위각, 본연적 무위각, 무념, 무심, 본성, 밝은성품, 적멸처가 아홉 가지 마음 상태이다. 중심, 중극, 영대, 미심, 중황, 옥침, 백회, 하단전, 황정, 명문, 회음, 황중이 몸 안에 세워지는 열두 개의 기점이다. 진여수행에서 활용되는 정(定)의 주체는 여덟 가지 마음상태와 열두 개의 기점이 쓰인다. 구경각과 무념, 무심, 적멸처, 밝은성품, 해탈지견, 암마라식, 원통식이 여덟 가지 마음 상태이다.

생멸수행의 선정바라밀은 선정의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定)의 주체가 활용된다. 무심은 중심(가슴바탕)자리에서 세워지는 편안함이다. 무념은 중황(머릿골 속)자리에서 갖추어지는 텅 비워진 자리와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다. 〈원각경〉에서는 무심처를 적멸처(寂滅處)라 하고 무념처를 적정처(寂靜處)라 한다. 적멸처를 갖추기 위해서 선나를 행한다. 적정처를 갖추기 위해서 사마타를 행한다. 선나와 사마타로 정(定)의 주체를 세운다. 선나가 중관(中觀)이고 사마타가 공관(空觀)이다. 초선정에서는 중심에서 세워지는 무심(無心)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편안함으로 선나를 행하고 아무렇지 않음으로 사마타를 행한다. 표면적 유위각이 쓰인다. 2선정에서는 중심에서 세워지는 무심과 중황에서 세워지는 무념(無念)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중심에서 편안함과 아무렇지 않음이 한자리를 이루고 중황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과 텅 비워짐이 한 자리를 이룬다. 미세적 유위각이 쓰인다.

3선정에서는 중심에서 세워지는 철벽과 중극에서 세워지는 무념처가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중극에서는 무념주와 아무렇지 않음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무념처를 이룬다. 미세적 유위각이 쓰인다.

4선정의 초입에서는 중심의 텅 비워짐과 중극의 무념처가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중심의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빈자리로 드러나고 중극에서는 무념주와 아무렇지 않음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이다. 본성을 인식한 후에는 하단전에서 형성된 한 물건과 본성으로 정의 주체를 삼는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5선정에서는 황정에 형성된 한 물건과 본성으로 정의 주체를 삼는다. 채약으로 욕정을 제도하고 공무변처정으로 감정을 제도한다. 본성을 주체로 해서 금강해탈도와 허공해탈도가 함께 행해진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6선정에서는 중황에 형성된 한 물건과 본성으로 정의 주체를 삼는다. 환정보뇌와 식무변처정이 행해지고 43단계의 척수막관이 행해진다. 본성을 주체로 해서 금강해탈도와 허공해탈도가 함께 행해진다. 일시적 무위각이 활용된다.

7선정에서는 무념, 무심, 간극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각성이 간극에 들어앉아서 본성과 합일을 이룬다. 일시적 무위각이 본연적 무위각으로 전환된다. 7선정을 무소유처정이라 한다.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초입반야, 중간반야가 그것이다. 초입반야가 수다원과이다. 중간반야가 사다함과이다. 초입반야에서는 본각이 정(定)의 주체이다. 중간반야에서는 본각과 무념·무심·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이다. 이 과정에서 의식·감정·의지가 진여심과 분리된다.

7선정부터는 무념, 무심, 간극, 밝은성품을 활용한 25가지 원통수행이 이루어진다. 이 수행이 8선정과 9선정까지 이어진다.

종반야에 들어가면 9선정이 된다. 종반야에서는 간극(寂滅處)이 정의 주체가 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㉝ 삼세제불

진리의 등대는 꺼지지 않는다

'무엇이 부처입니까?'라는 질문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수행자들의 뇌리에 맴도는 화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구하는 이는 많지 않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질문에 왜 허둥대며 움직이느냐이다. 허둥대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자신이 무엇인지에 거의 가까이 닿게 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아마 대부분은 놓치는 부분일 것이다. 몸과 마음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하는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보기 어렵다. 만약 되돌아본다면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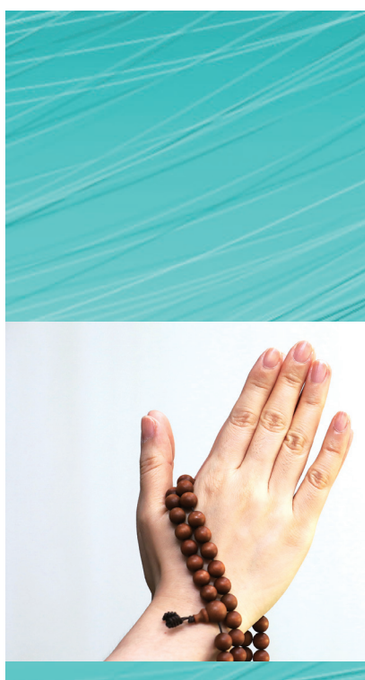
수행은 목적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르게 하다 보면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 이 되돌아봄이 아주 짧아져 찰나에 간파된다면 왜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지 의문이 풀린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은 일부분의 이름이지 전체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일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이름의 일부와 부처라는 이름의 일부를 알고 있으니 다르게 보였던 것이지 이름이 없는 전체를 알고 보니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보고 들은 언어와 소리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그러니 마음에 알고 있다는 분별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 알고 있다는 마음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모든 것에 분명한 앎이 생겨난다. 간택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봄은 일체를 그대로 본다. 그대로 본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라 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등대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 헤매게 된다. 그 등대의 이름을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다. 등대를 의지해 배가 정박하고 나면 그곳에 정박한 모든 배들은 똑같다. 배가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이름과 모양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이고 이름 붙여진 것은 그것의 이름이 아니다.

"범부들은 생명이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하기에 외도들이 삿된 견해로 그들의 망상을 증가시켰네. 그래서 생사의 떠돌아다님이 끝없이 돌고 돈다고 했네. 지금은 그들로 하여금 생사를 벗어나 해탈을 얻고 노력하고 정진해서 진제를 증득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제불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어 결코 우담바라처럼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다고 한 것이네."

이름과 모양이 그 본질을 덮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름과 모양에만 정신이 쏠려있다. 이름과 모양이 수승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남의 부러움은 살 수 있어도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야 하는 사명은 해결하지 못한다. 이름과 모양의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야만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고 해서 특별하ㅁ고 사실적으로 일어나 달라지고 나타나는 것은 없다. 아주 평범하고, 수행을 하기 전과 다르지 않고,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없으며, 남에게 신묘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사실로 알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알기에, 살아온 시간도 없고 살아야 할 시간도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오직 길을 잃은 배들이 불빛을 보고 찾아드는 등대로서 살아간다. 등대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다. 찾아든 배들을 등대에 정박시키지는 않는다. 정박시킬 수 있는 선착장이 없다. 그들도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면 하나의 등대가 된다. 어두운 밤의 가운데서 깜빡깜빡 불을 밝힐 것이다. 그 불빛은 또 다른 인연의 등대가 된다. 산꼭대기에 있는 봉화대가 불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진리의 불빛도 곳곳에서 나타나 어둠을 밝힌다. 따로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양과 소리에 물들지 않은 모든 이들이 등대인 것이다. 그러니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도 삼세의 부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부대·교도소 등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세요
최고의 언론 포교 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法보시 신청
02-2004-8212